

# 科學的 說明과 豫測

姜 信 澤

## 一. 行政學 研究問題의 選定과 知識의 假定

### 1. 序 言

그동안 行政學의 研究傾向도 여러 가지로 變遷하여 왔으나 그 窮極的인 主要 關心은 언제나 어떻게 하면 政府의 行政을 좀 더 合理化할 수 있겠느냐 하는 問題와 關聯이 있었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行政學은 實踐問題에 큰 關心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理由 때문에 政策科學이나 새로운 管理·分析의 技法이나 하는 것들이 行政學의 教科課程上 큰 매력을 갖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實踐의 問題라고 하면 흔히 그것은 理論과는 別個의 것으로 생각하거나 關聯이 있다고 치더라도 理論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傾向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學問上의 主要 關心은 現象의 理解와 說明(explanation) 뿐만 아니라 實踐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 豫測(prediction)의 根據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本稿에서는 (1) 行政學研究에 있어서 提起되는 問題의 性格과 「說明」間의 關聯을 간단히 살펴 보고 (2) 社會科學分野에 있어서의 「說明의 種類」를 要約 檢討한 다음 (3) 說明과 豫測을 위한 論理的構造를 알아 보고 (4) 끝으로 實踐과 豫測間의 關聯問題에 言及하고자 한다. 筆者가 이 分野에 관하여 쓴 다른 글과 마찬가지로 이 글도 몇몇 既存 文獻을 參考로 하여 筆者의 생각을 整理하여 보았을 뿐이다.

### 2. 問題의 性格과 「說明」

行政學徒가 그 研究나 諮問活動에서 提起하는 問題들은 여러 가지로 分類해 볼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論議의 便宜上 세 가지로 大別하여 생각하기로 한다. 첫째는 主로 規範的인 志向을 가지고 倫理的 價值判斷의인 見地에서 行政秩序를 바라보는 것이다. 둘째는 經驗的(empirical)인 立場에서 行政現象을 主로 事實關係로 研究하는 것이다. 셋째는 政策 計劃等

과 같은 實踐方案의 講究를 위한 關心이다.<sup>(1)</sup> 勿論 이러한 志向間에는 密接한 關聯이 있고 嚴格히 區別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한 篇의 論文에서 이 세가지를 다 함께 다루는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立場中에서도 經驗的理論을 發展시켜 보려는 사람들이 行政現象을 現象自體로서 理解하고 說明하며 豫測하려는 問題에 더 깊은 關心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前述한 바와 같이 行政學研究에 있어서 事實關係를 土臺로 한 理論發展에 置重하는 사람들도 窮極의으로는 行政의 實務나 實踐의 問題를 輕視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런데 흔히 實踐問題나 慣行을 改善하려는 사람들 中에는 經驗的理論의 土臺를 아직도 輕視하는 傾向이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따지고 보면 實踐이라는 것은 豫測을 土臺로 한 行動方案의 問題를 말하기 때문에 行政上의 慣行에 관한 改善이나 變革은 오히려 더욱 適切한 說明과 豫測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結局 行政現象 自體에 관한 說明과 豫測이 行政의 研究와 實際에 있어서 매우 重要的 것임은 두말할 必要가 없을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說明」이냐를 알아보기 前에 行政學研究에서 볼 수 있는 知識의 假定問題에 관하여 잠깐 살펴 보기로 한다.

### 3. 問題의 選定과 知識의 假定

#### (1) 閉鎖體制와 開放體制(closed system and open system)

어떠한 分析方式의 形式을 通하여 現象을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것은 어떤 說明方式을 擇할 것이냐 하는 것과 密接히 關連되어 있다.

例컨대 組織論(organization theory)에 관한 學者들 中에는 組織研究에 관한 接近方法을 흔히 閉鎖體制論(closed system theory)과 開放體制論(open system theory)의 立場으로 나누어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어느 쪽을 假定하느냐에 따라 說明의 內容이 달라질 것이다.<sup>(2)</sup> 이러한 두가지 接近方法에 관한 생각을 넓게 생각하면 行政學研究一般에서도 그것을 찾아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閉鎖體制論을 擇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確實性을 追求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萬一 우리가 어떤 特定한 體制의 現在의 狀態(present state)에 關하여 알기를 願한다면 그 體制를 하나의 決定的體制(determinate system)로 다루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決定的體制의 경우에는 어떤 一定段階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狀態에 있는가를 밝힐 수 있으면 그 體制가 다음 段階에는 어떤 狀態에 있게 될 것인가를 確定的으로 말할 수 있다.

(1) 拙稿 「行政學研究에 있어서의 問題選定の 基準」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論叢 9卷 1號 (1971年) pp. 128-133 參照.

(2) 本稿의 閉鎖體制와 開放體制에 관한 見解는 James D. Thompson, *Organizations in Action* (New York: McGraw-Hill, 1967), pp. 3-13. 을 參照.

왜냐 하면 이와 같은 決定的體制는 同時に 두개의 狀態로 갈 수 있는 可能性이 없기 때문에 그 體制의 變形은 特定的일 것이다.

勿論 우리가 現在の 狀況이나 狀態를 決定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거기에 內包된 變數와 變數의 相關關係의 數가 簡單하여 우리가 그것을 把握할만 하여야 하며 또한 모든 變數와 그 關係를 統制할 수 있거나 信憑性있게 豫測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體制는 閉鎖된 것이어야 하며 萬一 閉鎖가 完全치 못하다면 적어도 體制에 作用하는 外部의 影響이 豫測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어떤 體制의 未來의 狀態나 成果에 對하여 責任지는 位置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閉鎖體制의 假定을 擇할 可能性이 있다. 人間은 모든 窮極的인 不確實性を 除去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形態의 知識을 一種의 閉鎖體制로 還元시키려는 傾向이 있다는 것이다. 日常生活에서도 이와 같은 傾向이 있다고 한다면 責任이 무거워지고 損益負擔이 加增될 때에는 더욱 그러한 性向을 찾아 보게 되리라는 것은 當然하다. 이것은 合理主義模型의 使用에서 흔히 볼 수 있다.

行政學에 있어서의 合理主義的 接近方法은 特定한 目標達成에 寄與하게 될 要素라던가 構造를 意識의으로 限定選擇 함으로써 高度의 能率을 成就해 보려는 것이다. 閉鎖體制의 論理는 合理主義模型이며 不確實性を 排除시킴으로써 確定性を 이룩해 보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模型의 使用은 主로 計劃과 統制라는 觀念에 焦點을 두고 있다. 그러나 萬一 閉鎖를 假定하는 代身에 하나의 體制는 우리가 同時に 把握할 수 있는 것 보다 더 많은 變數를 包含하고 있다고 假定하거나 그 中에서 몇個의 變數는 우리가 豫測 또는 統制할 수 없는 外部의 影響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假定한다면, 이 境遇에는 合理主義模型과는 相異한 論理에 依據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所謂 自然體制模型(natural system model)을 使用하여 體制가 開放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때에는 不完全한 知識으로 因하여 不確實性이 뒤따르게 된다.

自然體制라고 보았을 때, 複合組織은 相互依存的인 部分들이 모여 하나의 一體를 形成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各 部分은 全體에 對하여 무엇인가를 주고 받으며 全體는 또 環境과 相互依存的인 關係에 있다. 이러한 立場에서는 體制의 生存이 目標로서 다루어지며 各 部分과 部分間의 相互關係는 進化過程을 通하여 決定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逆機能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逆機能도 調節이 될 것이며, 調節이 안되면 體制는 解體되어 버릴 것이라고 假定한다. 自然體制의 接近方法에 있어서의 中心概念은 自動安定裝置로서 그것은 部分과 活動間의 必要한 關係를 統制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環境으로부터 加해지는 妨害에도 不拘하고 體制를 存續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體制의 機能과 構造의 關係에 관하여는 말할 수 있으나 體制를 構成하고

있는 各部分의 具體的인 狀態에 關於하여 確定的으로 말하기는 어렵게 된다.

## (2) 完全한 知識과 不完全한 知識(perfect knowledge and imperfect knowledge)

위에서 要約 提示한 內容을 다시 行政學의 問題選定基準과 關聯시켜서 생각하여 본다면 閉鎖體制論的 立場은 實踐面에 더 密接한 關聯이 있으면서도 經驗的 理論面에서는 오히려 完全한 知識을 假定하고 있다. 反面에 開放體制論的 立場은 實踐方案을 當場 講究하는 것 보다는 形象自體의 理解와 說明에 더 關心이 있으면서도 不完全한 知識을 假定하고 있는 것이다.

如何間 論理的으로만 본다면 行政現象에 關於한 經驗的 理論에 立脚한 믿음단한 說明과 豫測을 土着로 하여 實踐을 위한 行動方案이 講究되었을 때 그 妥當性이 認定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完全한 知識下에서만 說明이나 豫測이 可能한 것은 아니며 不完全한 知識下에서도 說明과 豫測이 可能하나 兩者間에는 導出된 結論의 內容面에서 差異가 있을 뿐이다.

우리는 여기서 經驗的 理論과 實踐的 問題間의 關係를 밝히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行政學研究에서 提起되는 問題의 性格과 그에 關聯된 「說明과 豫測」이라는 側面을 간단히 밝혀 보았을 뿐이다.

以上の 檢討가 示唆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萬一 우리가 行政學分野에 있어서 一種의 完全한 知識을 가질 수만 있다면 說明과 豫測의 樣相이 달라지리라는 것이다. 即 우리는 언제나 特定한 事件(individual events)의 發生을 說明하고 豫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知識에 立脚하여 行動方案을 適切히 講究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反面에 우리가 不完全한 知識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說明과 豫測이 不可能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런 경우, 우리는 特定한 個別的 事件의 發生을 說明하고 豫測하기는 어렵지만 特定한 事件의 集團(class of events)의 發生은 說明하고 豫測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行動方案의 講究가 可能할 것이다.

便宜上 完全한 知識을 假定한다는 것과 實際로 完全한 知識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는 別個의 內容인 것이며, 閉鎖體制的 立場이 完全한 知識을 가지고 있다고 假定함에도 不拘하고 實은 그것이 더 不完全한 知識에 立脚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知識의 完全性(perfectness)과 說明의 論理的 構造에 關於하여는 本稿의 後半部에서 다시 論하기로 하고 다음에는 우선 社會科學分野에서 使用된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說明의 類型을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한다.

## 二. 說明의 類型

### 1. 「說明」이라는 用語의 問題

理論이나 模型이니 하는 用語 自體도 여러 가지의 用例가 있어서 그것이 어떠한 文脈속에서

서 사용되고 있느냐에 따라 意見이 달라지는 수가 있지만 그 論理的 構造에 관하여 整理할 수 있듯이 「說明」이라는 用語의 使用도 언제나 一定하지가 않으나 그 論理的 構造는 따져 볼 수 있다.

여기서는 「說明」이라는 用語의 用例를 밝히려는 것은 勿論 아니며 다만 意思傳達의 手段으로서의 言語나 現象記述手段으로서의 言語가 區別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現象記述手段으로서의 言語라는 立場에서 說明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를 알아 보코자 하는 것이다.<sup>(3)</sup>

그런데 우선 區別해 두어야 할 것은 社會觀察者와 社會科學者가 가지는 關心의 差異이다. 普通 말하는 社會觀察者의 立場이나 興味는 特定事件의 作用에 관하여 敘述하려는 것이고 社會科學者가 興味를 가지는 것은 單純한 社會觀察과 報告뿐만 아니라 社會의 事象의 集團에 관한 어떤 妥當性있는 一般論을 樹立하고자 하는 것이며 說明을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日常生活에서 쓰이는 說明이라는 것과 科學的說明도 區別되어야 한다. 日常生活에 있어서의 說明에서는 어떤 궁금증에 對하여 對答을 해주어서 心理적으로 滿足케 하거나 納得을 시키는 것으로서 그것은 때로는 이 世上의 생김새와는 無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科學的 說明에서는 이 世上의 實際를 理解시켜야 하며 그 理解도 論理的 妥當性에 根據를 두어야 한다.

여기서 아울러 言及해 둘 것은 말의 뜻을 分明히 한다면 어떤 概念을 쉽게 풀거나 그 內容을 解明히 주는 것, 即 概念自體의 解明(explication)과 어떤 主張 또는 記述의 論理的 歸結이나 證據를 밝히는 것과는 差異가 있다는 點이다.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科學的 說明이란 概念 하나 하나의 解明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論題 또는 敘述(言明, statement)間的 連結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 2. 說明의 種類

단순한 社會觀察이나 궁금증의 心理的 解消 또는 概念解明의 問題를 떠나 主張이나 敘述의 論理的 導出(logical derivation) 또는 論理的 證明을 行하는 方式에도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即 社會科學者가 人間行態나 集團行態를 說明하기 위하여 使用하는 方式에는 다음에서 考察하는 몇 가지를 볼 수 있다.<sup>(4)</sup> 이와 같은 方式相互間에는 어떤 關聯性이 있으며 그들은 結局 一般法則속에 包含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것에 關하여는 그때 그때 言及한 다음에 뒤에서 다시 整理하기로 하고 우선은 이들이 어떻게 使用되고 있으며 무엇을 말하려 하는

(3) May Brodbeck, "Explanation, Prediction and 'Imperfect' Knowledge," in May Brodbeck ed., *Readings in the Philosophy of the Social Sciences* (McMillan, 1968), p. 366參照.

(4) 說明의 類型을 여러가지로 달리 생각하여 볼 수 있음은 勿論이고, 또 그 接近方法과 論議의 水準加에 따라 言及해야 될 內容이 달라질 것이다. 이 글에서는 주로 Robert Brown, *Explanation in Social Science* (Chicago: Aldine Publishing Co., 1963)에서 提示된 類型을 中心으로 論議해 나가겠다.

것인가를 알아 보는 것에 主眼點을 두겠다.

(1) 發生論的(Genetic)說明

發生論的 說明은 세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어떤 事件의 起源을 밝히는 것이다. 둘째는 事件의 起源과 그 發展過程 兩者에 관하여 言及한다. 셋째는 發展過程에 관하여서만 言及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發生論的 說明은 흔히 特定한 年代나 日字와 관련시켜서 特定事件, 過程 또는 그 狀況을 報告하거나 記述하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이와 같은 發生論的 說明에 있어서도 行爲者의 意圖나 性向에 관한 說明과 並行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各 說明方式이 相互 排他的인 것은 아니다. 그런데 發生論的 說明은 前述한 바와 같이 特定한 事件과 過程의 特定段階에 관하여 言及하는 것이 普通이고 事件의 種類와 그 屬性間의 關係에 관한 普遍的인 關係를 밝히려 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 이 點에 있어서 發生論的 說明은 그 說明力이나 豫測可能性이 弱化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5)</sup> 政治學이나 行政學에 있어서 制度나 慣行의 發生과 發展過程을 다루는 說明이 흔히 行하여지고 있음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2) 意圖說明(Intention Explanation)

日常生活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 왜 그러한 行動을 하였는가를 說明함에 있어서 그 意圖가 무엇이었느냐를 밝히려는 足한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日常生活에 있어서 行爲者의 意圖라는 것이 重要함에도 不拘하고 社會科學에 있어서는 단순히 意圖만을 밝히려는 說明은 흔하지 않다. 그 理由를 찾아 보기는 어렵지 않다. 意圖說明(intention-explanation)은 特定한 目的指向的(goal-directed) 行態에 관한 疑問에 對答하는 것이다. 即 過去 現在 또는 未來의 어떤 行動(action)의 目的에 對하여 우리가 궁금할 때 그 對答을 얻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說明方式이 前述한 바 있듯이 흔하지 않은 까닭은 目的에 대한 情報가 없을 경우에만 意圖를 알 必要가 있는 것인데 이미 完成된 研究에 있어서는 行動의 目的에 對하여서도 밝혀졌을 것이므로 새삼 그 意圖를 再論할 必要가 없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目的을 알고 나서 다시 意圖를 알고자 한다는 것은 같은 質問을 反復하게 될 可能性이 있게 된다.

보통 意圖된 行態는 目的追求의 行態(goal seeking behavior)의 一種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目的追求의 行態란 廣範한 것으로 그것은 그 自體로 追求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目標에 對한 手段으로서 行하여지는 行動도 包含한다. 그러나 모든 意圖的인 行動이 目的指向的인 反面에 모든 目的指向的인 行動이 意圖的인 것은 아니다.

目的追求的인 行態로서의 意圖的 行態는 다음과 같은 特徵을 가지고 있다.<sup>(6)</sup>

(5) *Ibid.*, p. 55.

(6) *Ibid.*, pp. 65-66 및 Quentin Gibson, *The Logic of Social Enquir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0), p. 29 參照.

첫째 行爲者는 그의 目的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야 한다.

둘째 行爲者는 目的達成의 手段으로서 自身이 取한 行動과 目的間의 關係에 對하여 믿고 있어야 한다

셋째 目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行爲者는 自身이 그 目的達成을 위해 實際로 努力하리라는 것을 믿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 어떤 行爲者가 어떤 行動을 한 意圖가 무엇이냐를 알게 된 것이 說明力이 있으려면 研究者가 意圖의 行態에 대하여 얼마나 親熟하게 알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即 說明이라는 것은 궁금증을 풀어 주는 것인데 우선 궁금증이 생기려면, 意圖의 行態에 對하여 많은 知識이 있고, 當面한 어떤 事件이 前에 알고 있던 바와는 다르다고 생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意圖의 說明이 果然 說明力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知識의 所有如何를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意圖에 依한 說明은 國家等과 같은 複雜한 社會集團에 관하여 使用할 때 難點이 있다. 集團自體를 主體로 하였을 때의 「意圖」에 관하여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意圖를 나타내는 命題나 敘述과 機能의 敘述(functional statement)은 論理的으로 無關하다고 할 수 있다. 即 어떤 意圖를 가지고 行動했느냐 하는 것과 어떤 機能上의 效果를 가져 왔느냐 하는 것과는 別個라는 것이다.<sup>(7)</sup>

이제 意圖 說明의 構造(schemas)를 다음과 같이 例示해 볼 수 있다.

(a) 萬一 A, B, 및 C의 特徵을 가진 組織의 어떤 構成員이든지 그가 組織規範에 順從한다면 그는 그의 地位를 向上시키려는 意圖를 가지고 있다.

(b) 政府의 公務員인 X는 이런 組織의 構成員이며 그는 組織規範에 順從하고 있다.

(c) X가 組織規範에 順從하는 意圖는 그의 地位를 向上시키려는 것이다.

이것은 「X가 어떤 意圖로 組織規範에 順從하느냐」는 물음에 對答하려는 說明이 갖는 形式인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바와 같이 單純히 意圖가 무엇이라는 것이 行動의 根據로서 納得이 되려면 좀 더 一般論的 主張의 뒷받침을 必要로 하고 있다.

結果적으로 意圖 敘述(intention statement)의 屬性은 다음과 같다.<sup>(8)</sup>

첫째 意圖 敘述만으로써 할 수 있는 主張이라는 것은 目的에 對한 信念 敘述(belief statement)과 이와 같은 目的에 對한 手段에 관련된 信念과 知識의 敘述에 限定된다.

둘째 非意圖의 敘述만 가지고는, 論理的으로 意圖 敘述을 導出해 낼 수 없다.

셋째 萬一 두개의 意圖 敘述이 다 같이 同一한 目的에 準據하고 있다면 그 中하나의 敘述이 그 中의 다른 敘述에서 導出될 수는 없다. 例컨대 組織規範에 順從하는 意圖가 地位의 向

(7) Brown *op. cit.*, p. 68.

(8) *Ibid.*, p. 70.

상에 있고 또 組織內에서 情報를 交換하는 意圖도 地位의 向上에 있다고 할 때 이러한 두 개의 敘述를 가지고, 「規範順從의 意圖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그가 「情報交換意圖」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기란 어렵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考察한 것은 「意圖를 밝히는 說明」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特性과 制約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본 것이다.

그런데 單純히 어떤 意圖가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行爲者는 왜 그러한 意圖를 갖게 되었는가?」를 묻게 된다면 이것은 이미 意圖說明의 範圍를 벗어나서 欲求, 動機, 性向<sup>(9)</sup>에 依한 說明으로 擴張되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意圖說明이 適用될 수 있는 範圍는 좁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理由로 社會科學에 있어서 意圖說明이 使用되기는 하지만 큰 役割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어떤 動機에서 그러한 意圖를 갖게 되었느냐를 알 수 있을 때에만 充分한 說明이 行해진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狀況과 人間의 性格을 構成하는 動機의 體系를 充分히 알고 그들이 人間의 行動에 미치는 具體的인 效果에 관한 法則도 樹立할 수 있을 때에만 좀 더 完全한 說明의 理境에 到達할 수 있을 것이다.<sup>(9)</sup>

以下에서 性向(素質, 素因, disposition)에 依한 說明을 간단히 보기로 한다.

### (3) 性向(Dispositions)에 依한 說明

性向이라는 것은 特定한 方式으로 行動하려는 傾向을 말한다. 그러므로 性向說明에 依하여 意圖의 存在를 說明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即 傾向이라는 것을 어떠한 方法으로 分類하던 間에 傾向 또는 性向에 依한 說明이라는 것은 疑問이 되고 있는 行態를 그와 같은 傾向속에 包含시킴으로써(by subsuming) 說明하는 것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왜 組織規範에 順從할 意圖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疑問에 對한 性向說明에서는 「組織規範에 順從하려는 意圖」가 「一般的으로 規範에 順從하는 性向」속에 包含된다고 봄으로써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sup>(10)</sup>

넓은 意味에 있어서의 性向의 屬性속에는 여기서 말하는 性向과 能力(capabilities)이 包含되기 때문에 사람의 行態를 性向에 依하여 說明하는 것은 明示的으로는 그가 가진 性癖을 指稱하는 것이며 默示的으로는 그에 관련된 能力을 指稱한다. 勿論 意圖의 行動이라는 것은 언제나 性向의 發動인 것은 아니며 反面에 性向의 發動中에는 意圖의 이 아닌 것도 많이 있다. 따라서 意圖說明과 性向說明間의 關聯幅은 크지 않다. 다만 어떤 意圖說明은 性向說明으로부터 導出될 수 있으나 그 逆은 成立되지 않는다.<sup>(11)</sup>

(9) Gibson, *op. cit.*, pp. 30-32.

(10) Brown, *op. cit.*, p.75.

(11) *Ibid.* p.77.



性向의 類型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卽 ① 反射的行動 ② 習慣 ③ 動機 등이 있다. 이 分類야 어떻든간에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어떤 動機를 가지고 行하여지는 行態는 條件의 變化에 따라 變할 수 있지만 習慣이나 反射的行動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一般的으로 말해서 集團行態를 說明하고자 하는 社會科學者에게 있어서 習慣에 依한 說明이란 큰 쓸모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性向說明은 주로 個人의 行動을 說明하기 위해서 쓰이는 것이 普通이다. 이러한 動機를 社會過程이나 制度에 連結시킴으로써 「왜 이 集團에서만 이러한 動機를 찾아 볼 수 있는가?」하는 疑問에도 對答할 수 있게 만들지 못하는 限 社會科學者가 動機說明을 使用해야 될 別般 理由가 없다.<sup>(12)</sup>

다만 動機說明으로 부터 우리는 檢證可能한 豫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說明의 方式을 認定할 뿐이다. 그리고 이것이 앞에서 考察한 意圖說明에 있어서 보다는 좀 더 幅이 넓은 一般命題를 使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說明力이 좀 더 크다고 할 것이다.

#### (4) 理由(Reasons)

行爲者가 어떤 行動을 하는 理由를 밝히므로써 說明을 提供하는 수도 있다. 이것은 意圖에 依한 說明과 비슷한 點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考察하겠다.

理由說明에 있어서 念頭に 두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sup>(13)</sup>

첫째 理由를 밝히는 說明은 오직 行爲에 對하여만 할 수 있으며 行爲者가 그 自身の 理由를 가지고 있는 行爲는 또한 그 自身이 遂行하기로 意圖한 行爲라는 것이다.

둘째 理由說明은 個人으로서의 行爲者 또는 集團構成員으로서의 個人과 關聯시킬 수 있어야 한다.

셋째 理由說明은 論理的으로 보아 機能的(因果的 效果라는 뜻에서의 機能)說明과 關聯이 없다.

넷째 다음과 같은 것에 관한 證據가 있어야 한다. 卽 ㉠ 行爲者의 目標 ㉡ 行爲者가 自身の 目標와 手段에 關聯된 論議를 展開할 能力 ㉢ 이러한 論議의 結果가 그의 行爲에 決定的인 影響을 미쳤다는 것.

다섯째 하나의 理由說明은 限定된 範圍內에서만 理由를 說明하기 위하여 使用할 수 있다.

아무튼 理由說明은 行爲의 說明인데 社會科學에서는 行爲만을 說明하는 일은 흔하지 않고 理由에 依한 說明도 結局은 一般論의 뒷받침을 받아야 한다.

以上에서 간단히 要約해 본 意圖에 依한 說明과 理由에 依한 說明은 密接한 關聯이 있으며 이것들은 또한 目的(purpose)에 依한 說明과도 類似하다.

그런데 社會科學이 科學으로서 成立될 수 없다고 主張하는 사람들 中에는 社會科學에서는

(12) *Ibid.*, p. 80.

(13) *Ibid.*, p. 103.

目的, 意圖, 理由 등으로 說明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같은 說明에서는 一般法則을 必要로 하지 않으며, 一般法則의 必要가 없다면 그것은 科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主張은 몇가지 誤解에서 오는 것이다.<sup>(14)</sup> 첫째는 行動(action)이라는 것에 대한 誤解이다. 即 人間行動은 어떤 結果를 가져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므로 하나의 行爲者가 어떤 目的 또는 結果를 위하여 行動하고 있는 가를 우리가 알면 그것만으로서 充分한 說明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人間이 一定目標를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特정한 行動을 한다고 하는 것에 관한 一般法則이 없이는 目的이나 意圖의 指摘만으로써 充分한 說明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로는 行爲者와 研究者를 區別하지 않으므로써 생기는 誤解이다. 行爲者의 경우 自己가 무슨 目的으로 어떤 行動을 한다는 것을 分明히 하진 그만일 것이지만 研究者의 경우에는 그 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자 하기 때문에 目的이나 意圖를 밝히므로써 說明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다. 셋째로는 目的說明과 機能說明(functional explanation)을 混同하는 경우에 誤解가 생긴다. 目的說明이라는 것은 特定한 行爲者가 未來의 一定時點에서 特定한 事物의 狀態를 가져 오기 위하여 行動하고 있는 것을 밝히는 것이며, 機能說明은 行動과 結果間에 關聯을 맺을 수 있겠느냐를 밝히는 것이다. 目的한 바대로 언제나 結果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當然한 이야기이므로 人間의 目的만을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世上의 理致를 알게 할 수는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結果적으로 目的, 意圖, 理由 등에 의한 說明이 社會科學에서 쓰이고 있는 것은 事實이지만 그들 具體만으로서 充分한 說明을 다 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고, 行爲者가 가진 目的, 意圖, 理由 등과 그의 行動間의 因果關係가 밝혀져야 하는 것이다.<sup>(15)</sup>

#### (5) 機能(Functions)

여기서 말하는 「機能」이란 「體制(system)의 運營에 있어서 차지하는 役割 또는 效果」를 意味한다. 이러한 意味로 쓰이는 機能에 관한 命題에 있어서는 行爲者를 前提로 할 必要가 없다.

機能의 命題를 옮겨 쓰기 위한 條件으로서 몇 가지를 考慮해야 한다.<sup>(16)</sup> 即 ① 機能의 敘述을 함에 있어서는 體制를 念頭に 두거나 體制를 指稱하게 되는데 體制는 特定한 屬性에 관

(14) Gison, *op. cit.*, pp. 34-39.

(15) *Ib. id.*, p. 42. Van Dyke는 말하기를, 人間의 行爲를 說明하는 것이 아니고 事物의 狀態나 條件을 說明하려 하는 경우에는 原因(causes)에 의하여 說明하여야 될 것이라고 한다. 理由와 原因을 區別하기는 어렵지만 「行動의 理由를 指稱하는 경우에는 보통 目的志向의인 行爲者가 內包하는 反面에 行動의 原因을 指稱하는 경우에는 條件 또는 事件과 그 結果를 含蓄한다. 理由는 個人的인 것임에 反하여 原因은 보통 社會的이거나 環境的이다」라고 하고 있다. Vernon Van Dyke, *Political Science: A Philosophical Analysi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0), p. 27. 參照

(16) Crown, *op. cit.*, p. 112.

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類型的 「負의 還流」(negative feedback)를 가지고 있다. ⑥ 이 體制는 반드시 安定된 體制일 必要는 없다. ⑦ 體制를 指稱하거나 念頭に 두면서도 그러한 表現을 除去하기 위하여 機能의 命題를 再構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前과 같은 內容을 가지면서도 非機能的인 命題가 되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본다면 機能 하나만으로서는 充分한 說明이 되지 않으며, 體制의 維持나 運營과 關聯된 一般法則을 必要로 한다. 다시 말하면 體制에 관한 一般論의 前提가 없이는 機能說明을 行할 수가 없는 것이다.

機能이라는 用語가 「目的」이나 「任務」라는 뜻과 「效果」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나 實際로 兩者를 嚴格히 區分하기는 쉽지가 않다. 特히 政治學의 경우 그 差異가 分明치 않은 경우가 많다.

即 政治制度上的 機能이라는 것이 目的的인 것인지 아닌지를 分明히 말하기 어렵도록 그 用例가 애매하게 쓰인다. 政治制度가 가져야 할 機能의 處方과 政治制度가 實際로 가지고 있는 機能의 描寫와를 區分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混亂이 더 커진다.

「그 機能은 무엇인가?」라는 말도 그것이 使用되는 狀況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sup>(17)</sup> 即 ① 그것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또는 어떤 目的을 가져야 하는가? ② 그것이 實際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事實上 어떤 效果를 가지고 있는가? ③ 어떤 目的에 寄與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 等이다. 그런데 政治學에 있어서 機能의 用語의 使用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그 用例의 區分보다도 어떤 事件이나 機能을 說明하기 위하여 「機能」이라는 것을 내세울 때 果然 어떤 情報나 資料를 提示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機能說明을 위한 體制의 假定에 있어서 몇 가지 疑問이 提起된다. 即 安定된 體制에 있어서 維持되고 있는 屬性은 무엇인가? 어떤 內的屬性이 變數이며 그것은 어떻게 測定될 수 있으며 그 測定値는 무엇이며 範圍는 무엇인가? 어떤 外部的 條件이 固定되어 있다고 假定하며 어떤 限定된 範圍內에서 變하고 있는가? 하는 것 等이다. 이러한 疑問을 前提로 하기 때문에 體制와 機能을 다 함께 提示하지 못하면 그 機能說明은 充分하지가 못하다.

體制와 機能을 함께 提示하지 않으면 안되리라는 생각과 關聯된 論議로서 「社會科學者는 法則을 發見하기 위하여 機能說明을 찾아 내도록 努力하는 便이 좋으나 아니면 法則을 發見하고 난 다음 機能說明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期待할 것이냐?」에 관한 論議가 있다. 機能說明에 있어서 그 充分 및 必要條件等을 嚴密히 밝힐 수 있다면 이것은 法則의 發見에 寄與할 것이다. 그러나 機能說明과 法則의 發見이 거의 함께 이루어진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 하면 어떤 說明이 法則과 같은 一般論題를 包含하고 있고 그로부터 豫測과 說

(17) *Ibid.*, p. 126.

明을 위한 결론이 演繹될 때에만 機能에 의하여 說明하고 豫測하는 것도 可能하기 때문이다.<sup>(18)</sup>

實際問題로서 結局 研究者의 생각에 어떤 自體保存的인 體制가 있다고 믿을 만한 根據가 있다면 조작할망정 그는 機能說明을 使用할 수 있다. 勿論 그가 바라야 할 것은 이러한 初步的인 說明이 後에 體制의 作用을 더욱 明示的으로 描寫하는 法則에 의하여 代置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sup>(19)</sup>

#### (6) 經驗的 一般論(Empirical Generalizations)

위에서 몇 가지 說明의 類型을 살펴 보면서 그러한 說明들이 充分한 說明力(explanatory power)을 지니려던 一般法則에서 導出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累次 言及하였다. 그렇다면 왜 一般法則의 뒷받침을 받은 說明이 더 큰 說明力을 갖게 되는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一般論 또는 一般法則이란 經驗的 事實間의 關係에서 發見된 普遍性이나 總括的인 主張이나 命題이다. 따라서 說明하고자 하는 特定한 事件이나 事實關係가 그와 같은 것을 包容하고 있는 一般論에서 導出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만큼 더 納得이 가게 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一般論이라 하더라도 더 普遍的인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比較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어느 것이 더 普遍的인지를 따지는 基準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이 問題를 省略하기로 한다.<sup>(20)</sup>

다만, 特定事件이나 一團의 事件을 說明하기 위한 前提로서 一般法則의 主張이 必要할 것이고 그러므로 그와 같은 法則의 發見이 說明에 있어 有用하고 行爲者의 具體的인 意圖나 目的等만으로 說明하는 것보다 그러한 法則에서 導出될 수 있는 說明이 그 妥當도가 높아지리라는 것도 認定된다. 그런데 社會科學에서 使用하는 一般法則에 관해서는 批判을 加하는 사람도 많다. 첫째는 社會科學者가 提示하는 一般法則은 제대로 構成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 둘째는 비록 잘 構成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單純한 經驗法則에 不過할 뿐 理論上의 一般法則이 못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둘째의 批判에 對해서는 社會科學에 있어서 理論다운 理論이 있느냐 하는 問題와 아울러 다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다음 機會에 考察하기로 한다

첫째의 批判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使用하는 一般法則中에는 거기에 包含된 屬性을 제대로 定義하지 않았기 때문에 檢證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때로는 一般法則이라고 主張되는

(18) Van Dyke는 이와 같은 論爭에 直接 言及하고 있지는 않으나 個別的 機能을 體制와 關係시킬 것이냐 또는 體制設定後에 그 機能을 찾아갈 것이냐 하는 問題는 節次上의 差異로 보고 있는 듯하다. 前掲 *Political Science*, p. 30

(19) Brovn, *op. cit.*, p. 132.

(20) 普遍性있는 一般論을 比較하는 基準에 관하여는 Ernest Nagel, *The Structure of Science*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Inc., 1961), pp. 37-42 參照.

것 中에도 퍼로는 同語反復(同一論, tautology)에 不過하여 檢證되지 않는 것도 있다. (21)

아무튼 經驗的 一般論은 그것이 使用되고 있는 文脈과의 關聯下에서만 잘 構成되었는지의 與否를 따져 볼 수 있겠으나 하나의 經驗的 一般論은 또 다른 經驗的 一般論과 連結되어야만 그 信憑性이 높아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理論으로 부터 導出될 수 있을 때에만 그 說明力은 더 커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說明은 終局的으로는 世上의 理致와 連結되어야 하며 專論은 그러한 理致를 體系化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一般法則의 種類나 理論自體의 構造等に 관하여는 本稿에서 더 以上 다루지 않을 것이다.

### 三. 說明과 豫測의 構造

#### 1. 說明의 構造

우리는 社會科學에서 使用되고 있는 몇 가지 說明方式을 考察하면서 特定한 事件이나 事件의 集團이 說明될 수 있는 論述을 하기 위하여는 一般法則의 뒷받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번 言及하였다. 一般法則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意味하는가를 보기 위하여는 科學的 說明의 構造를 檢討할 必要가 있다.

特定한 事實을 科學的으로 說明하기 위한 形式的 構造는 세 部分으로 構成된다. (22)

첫째 說明하고자 하는 特定事件을 描寫하는 statement E

둘째 E에 依하여 描寫되고 있는 事件에 先行하거나 因果的으로 相互 關聯된 特定한 狀況을 描寫(記述)하는 一聯의 statement C<sub>1</sub>으로 부터 C<sub>n</sub>

셋째 L<sub>1</sub>으로 부터 L<sub>n</sub>까지의 statement로서 그것은 普遍論이며 「C<sub>1</sub>으로 부터 C<sub>n</sub>에 依하여 描寫되고 있는 事件이 일어날 때 마다 E에 依하여 描寫되고 있는 類의 事件이 일어난다」라는 內涵을 가진다.

이와 같은 세가지의 條件이 어떤 事件의 說明이 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條件을 充足시켜야 한다. 첫째로는 E statement가 C와 L statements의 두가지로 부터 演繹되어야 하며 二. 어느 하나로 부터만 演繹되어서는 안된다. 둘째로는 C와 L statements는 眞實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科學的 說明의 形式은 다음과 같이 表示할 수 있다.

$$\begin{array}{c} L_1 \dots L_n \\ \hline C_1 \dots C_n \\ \hline \therefore E \end{array}$$

그러한데 위와 같은 科學的 說明의 構造는 科學的 豫測(prediction)과 同一하며 兩者間의 差

(21) Brown *op. cit.*, p. 139.

(22) Richard S. Rudner, *Philosophy of Social Scienc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66), p. 60.

異는 研究者의 時間的 立場에서 본 實用上의 差異가 있을 뿐이다. 說明의 경우에는 研究者가 보았을 때 相對的으로 過去의 事件을 놓고서 그것을 內包할만한 適切한 L과 C를 찾아 내는 것이다. 豫測의 경우에는 L과 C를 놓고 그것이 內包하는 事件 E를 찾아 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豫測할 수 있었던 事件에 限해서만 說明도 可能한 것이다.

要컨대 科學的 說明과 豫測은 다 같이 敘述의 演繹的 體系化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것은 論證(arguments)으로서 그 結論은 說明되고자 하는 事件(explanandum)을 記述하고 있는 文章 E이다. 그 前提(explanans)는 L<sub>1</sub>부터 L<sub>n</sub>까지의 法則文章과 C<sub>1</sub>부터 C<sub>n</sub>까지의 特定狀況文章으로서 說明을 하여 주고 있는 文章이다. 그 뿐만 아니라 그 論證形式은 explanans의 文章속에 explanandum이 論理的으로 內包되고 있는 것이다.<sup>(23)</sup>

理論도 그것을 構成하고 있는 主張들을 演繹的으로 體系化한 것이며 理論의 役割中 重要な 것은 說明論證을 위한 法則的 言明을 提供해 주는 것이지만 說明論證과 理論은 區別될 수 있다. 特히 說明論證을 위한 explanans의 一部가 되는 法則的 言明은 반드시 어떤 하나의 理論에서 나와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使用하는 說明과 豫測이라는 用語는 前述한 바 있듯이 科學的方法論上의 專門用語이다. 그러나 이 用語가 日常生活에서도 쓰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混亂이 있을 수도 있다. 日常的인 意味에서 쓰이는 「說明」에 관하여는 이미 言及한 바 있거니와 日常的 用例에 있어서의 「豫測」이라는 말이 指稱하는 것도 論證이 아닌 것이 普通이며 오히려 어떤 未來의 事件에 대한 言明을 말하는 것이다. 充分한 體系化가 없이 이루어지는 日常的인 豫測的 言明은 주로 理性的 豫見(rational foresight)을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未來展望 또는 豫見은 社會科學者의 活動中 重要な 部分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sup>(24)</sup>

## 2. 演繹的 說明(Deductive Explanation)

위에서 본 說明의 構造에서는 說明上의 論證이 演繹的 形式을 取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說明에 있어서 이와 같은 演繹的 模型만이 참다운 說明을 可能케 하여 주는 論理的形式이라는 主張이 있는 反面에 그에 對한 反駁도 여러 가지가 있다. 說明에 있어서의 演繹的 模型을 擇하는 사람들이 主張하는 것은 어떤 個別的事實 또는 一團의 事實이 說明되기 위하여서는 그것이 하나 또는 그 以上の 다른 敘述과 아울러 하나 또는 그 以上の 一般論 또는 法則으로 부터 演繹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主張을 反駁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첫째 日常用語에 있어서 演繹이나 說明이라는 用語의 用例가 多樣하므로 그中 어느 하나만을 옳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둘째 演繹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없으며, 셋째 論理的眞實만이 經驗的眞實 相互關係를 連結시킴에 있어서 決定的인 것이 아니라 概念分析(conceptual analysis)

(23) *Ib d.*, p. 63.

(24) *Ib d.*, p. 65.

도 決定的이 라는 것等이다.

여기서는 兩者間的 論爭을 일일이 紹介하는 것을 避하고 왜 科學的說明은 演繹的이어야 된다고 主張하는가 하는 內容만을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한다.

적어도 科學活動에 있어서는 「演繹」이 「說明」의 核心的 뜻이라고 하는 것은 特定한 人間集團의 言語行態에 관한 人類學的인 事實로서 이와 같은 集團에서는 演繹的 說明이 다른 方法보다 優待되고 있다는 것이다.<sup>(25)</sup> 그렇다면 그것이 다른 方法보다 優待되고 있는 理由는 무엇인가?

다른 分野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哲學에 있어서도 定義(definition) 또는 論理的眞實로 따져 보아 納得이 되면 그것은 決定的(conclusive)이라고 한다. 어떤 主張이나 言明이 그 用語의 使用에 관한 慣例에 비추어 眞實이라면 그것을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가령 「黨首」라는 말과 「頭領」이라는 用語가 同義語이고 「頭領이란 集團의 우두머리」라고 定義된다면 「黨首는 集團의 우두머리이다」라는 叙述의 眞實성을 否認하지는 않으리라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言明이 그것을 論理的으로 導出해 낼 수 있는 또 다른 言明(前提)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면 그러한 前提의 言明이 眞實인 것을 받아 들이는 限 거기로 부터 導出된 言明(主張)의 眞實성을 否認하지는 않으리라는 것이다.<sup>(26)</sup>

그렇다면 納得할만 한 前提에 呼訴하는 것이 어찌하여 說明을 決定的인 것으로 만들어 주는가? 그것은 왜냐하면 前提가 되는 一般法則과 說明되는 事件인 結論間에 論理的 眞實 또는 同一論(tautology, 同語反復)이 成立되기 때문이다.<sup>(27)</sup> 萬一 前提가 되는 一般論이나 事實에 관한 同別的 言明을 眞實로서 받아드린다면, 演繹的 說明이 同語反復인 連結을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結論도 眞實일 수 밖에 없다. 바로 여기에 演繹的 說明(deductive explanation)의 長點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立場에서는 說明이란 바로 演繹的인 것이고, 演繹的이 아닌 것은 說明이라고 말할 만 한 正當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sup>(28)</sup>

### 3. 完全한 知識과 演繹的 說明(Perfect Knowledge and Deductive Explanation)

說明과 豫測에서 使用될 수 있는 一般法則의 種類를 몇 가지로 區分하여 法則의 種類別로 說明方式의 差異를 論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演繹的 說明方式의 解明을 위하여 所謂 完全한 知識과 不完全한 知識下에서 說明이라는 것이 各各 무엇을 뜻하게 되는 것인가를 밝혀 보기

(25) Brodbeck, *op. cit.*, p. 369.

(26) *Ibid.*, p. 370.

(27) 이것은 論理的 連結상의 tautology 를 말하는 것이지 statement 自體가 tautology 여서는 안되고 그것은 이 世上에 관하여 記述하는 經驗的 主張이어야 할 것이다.

(28) *Ibid.* 社會科學에 있어서의 演繹的說明에 관하여는 Carl G. Hempel이 그의 글 “The Function of General Laws in History,” *The Journal of Philosophy*, Vol. 39 (1942)에서 強力히 主張하였으며 이것이 오늘날까지의 이 問題에 관한 論爭의 始發點이라고 보는 이가 있다. Rudolph H. Wingartner, “The Quarrel about Historical Explanation,” in Brodbeck, *op. cit.*, pp. 349-350 參照

로 한다.

어떤 理論의 表現에 있어서 어떤 重要的 變數가 빠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完全(complete)한 理論이다. 現在 對象이 되고 있는 것 以外에는 다른 곳 다른 時間에 發生한 아무것도 理論이 對象으로 삼고 있는 屬性의 作用에 影響을 미치지 않으며 最惡의 경우, 이와 같은 外部의 影響을 計算이나 豫測에 있어서 어떻게 處理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경우이다. 다시 말하면 그 體制는 閉鎖(closed)되고 있다. 이와 같은 理論의 法則은 過程法則(process law)이라 부르기도 한다.<sup>(29)</sup> 우리가 萬一 過程法則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一定時點에 있어서의 어느 特定한 變數의 값을 다른 時點에 있어서의 다른 모든 變數의 값으로부터 計算해 낼 수 있다. 即 우리는 모든 變數의 未來의 값을 豫測할 수 있으며 그 現象에 관한 過去의 歷史를 다 알 수도 있다. 또 우리는 어느 한 變數의 變化가 다른 變數에 對하여 어떤 變化를 갖어 오는지를 알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體制를 어떻게 操作함으로써 願하는 變化를 가져 올 수 있는가, 어느 部分에 있어서 無力한지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完全한 知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엔 萬一 우리가 그 體制의 現在의 位置만 안다면 未來나 過去의 位置를 計算해 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경우에는 豫測과 說明이 演繹적으로 行해질 수 있고 個別的인 事件(individual events)의 發生時期와 場所를 豫測하고 說明할 수 있을 것이다.<sup>(30)</sup>

#### 4. 不完全한 知識과 說明(Imperfect Knowledge and Explanation)

위에서 본 바와 같은 完全한 知識이 있다손 치더라도 中の 어느 法則을 前提로써 使用할 것인가를 決定함에 있어서 잘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演繹의 說明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前提의 選擇은 비록 그것이 그릇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嚴密한 意味에 있어서는 論理의 問題가 아니며 演繹의 妥當性에 對하여 影響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만 經驗的 事實에 있어 虛僞일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또 前提로서 使用되는 特定狀況이나 條件의 測定에 있어서 誤差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록 演繹의 節次를 거치더라도 結論上의 誤謬 即 說明하고자 하는 事件과 符合시킬 수 없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測定上의 誤差問題도 演繹論理와는 別個의 것이다.

測定上의 誤差에서 오는 不確實性이라는 問題는 不完全한 知識이라는 問題들 살펴 봄으로써 다루어질 수도 있다.<sup>(31)</sup> 普通 社會科學의 知識은 不完全하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社會科學分野에서 使用되는 많은 理論이 그 變數面에서 完全성과 閉鎖性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다.<sup>(32)</sup> 이와 같은 不完全한 知識을 가지고서는 演繹의 說明方式을 使用할 수 없을 것이

(29) Gustav Bergman은 그의 著書, *Philosophy of Science*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57), pp.91-115에서 process에 관하여 論하고 있다.

(30) Bricebeck, *op. cit.*, p. 372.

(31) *Ibid.*, pp. 375-377.

(32) 社會科學의 一定分野에 있어서 왜 closure와 completeness에 到達할 수 없는가 하는 問題는 理論 問題의 還元이라는 面에서 다루어 볼 수 있다. 拙稿「政治學에 있어서의 理論單位와 方法論的



라고 주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社會科學은 그 理論構成에 있어서 完全성과 閉鎖性에 到達할 수 없는 缺陷을 補完하기 위하여 統計의 概念을 使用한 技法을 發展시켜 왔다. 統計의 知識은 不完全한 知識에 屬한다. 그리고 社會科學分野의 理論中에는 計量化를 하지 않으므로써 생기는 不完全性도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不完全」한 知識 때문에 생기는 缺陷에도 不拘하고 그것은 說明에 있어서의 演繹可能性에 影響을 미치지 않는다. 演繹이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다만 그것이 完全한 理論을 가지고 演繹導出한 結論과 差異가 있을 뿐이다. 卽 萬一 우리가 最初의 狀態를 안다고 할 때 完全한 知識에서 얻을 수 있는 바와 같은 決定的 法則(deterministic law)을 가지고 있다면 個別의 事件(individual event)을 豫測할 수 있으나 統計法則(statistical law)으로 부터는 事件의 集團(class of events) 卽 一定集團에 있어서의 特定屬性의 分布만을 豫測할 수 있는 뿐이다. 바꾸어 말하면 統計的 法則으로 부터는 個別의 事件을 豫測할 수도 없으며 說明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事件의 集團이나 그 分布에 관하여 演繹的 說明이나 豫測이 行해질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結局 여기서도 演繹的 方式이 適用된다고 할 것이다.

以上에서는 說明과 豫測의 論理的 構造를 極히 간단히 살펴 보았다. 그리고 또 科學的 說明에 있어서의 演繹的方法만을 주로 다루어 보았을 뿐인데 演繹的方法이나 其他 說明方式을 充分히 다루기 위해서는 그에 對한 비판도 充分히 檢討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그와 같은 批判의 몇 가지만 간단히 言及해 두기로 한다.

批判도 여러 갈래로 行해지고 있지만 大概 다음과 같은 主張들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個別의 事實의 說明에는 法則의 援用이 必要 없으며 法則 없이도 事件의 原因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하는 主張도 있으며, 事件의 意味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充分한 說明이 된다고 主張되기도 한다. 意味만으로 說明이 可能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소위 演繹的 理論이라는 것도 存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卽 理論은 規則에 依하여 意味間에 連結을 이루고 있는 것이지만 一般法則들이 演繹的으로 體系를 이룬 것이 아니라는 主張이다. 이러한 主張은 概念의 意味가 가지는 同語反復的眞實(tautological truth)과 經驗의 重要性을 指稱하는 經驗的眞實(empirical truth)을 混同하고 있는 것이다. 概念은 우리가 願하는 뜻을 붙여 마음대로 定義할 수 있으나 概念自體의 重要性(significance)은 우리가 任意로 決定할 수가 없는 것이다.<sup>(33)</sup> 그 밖에도 眞繹的 說明方式을 批判하는 立場中에는, 人間의 動機나 性格에 관하여는 一般化

個人主義」서울大 行政大學院 行政論叢 10卷 1號(1972) pp. 236-246. 參照

(33) Bergman은 “A concept is neither true nor false, only propositions are. A concept is neither valid nor invalid, only arguments are.”라고 하면서 하나의 概念은 眞實이라 믿어지는 法則의 主張에서 다른 概念과 함께 나타날 때에만 重要性(significance)를 갖는다고 한다. 前掲. *Philosophy of Science*, p. 50. 參照.

가 不可能하기 때문에 一般論의 뒷받침을 받는 說明方式으로는 說明을 할 수 없고 오히려 人間의 動機와 性格에 依한 說明 그 自體는 完全한 것일 뿐만 아니라 窮極的이며 決定的 (final and conclusive)이라고 한다. 卽 社會科學에 있어서는 人間의 動機나 目的을 通한 事件의 說明만이 可能하다는 것이다. 이 問題에 關하여는 위에서 說明의 類型을 考察하면서 다룬 바 있다.

#### 四. 實行과 豫測

本稿의 序頭에서 우리는 行政學研究에 있어서의 問題選定基準과 關聯하여 實踐上의 關心에 言及한 바 있다. 一般的으로 社會現象을 研究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現象 그 自體의 說明 단으로써 充足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政治學이나 行政學의 경우 그 主要 關心이 實踐의 問題에 쏠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特定한 變化나 結果를 가져 올 수 있느냐 하는게 그들의 關心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세로는 理論과 實際를 別個로 보거나 兩者間의 符合關係가 成立하지 않는 面만을 強調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글에서 꺼내려 온 생각대로 한다면 研究에 있어서 理論과 實際는 相互作用하면서 結果적으로 社會現象의 理解와 說明을 도와 주는 것이 될 것이다.

마치고 보면 實際나 實踐이라는 것은 어떤 結果를 豫想하고 行動하는 것이므로 豫測을 想定하고 있다. 따라서 理論에 立脚한 豫測이 當然히 行爲者의 實行方案의 基礎가 되리라는 것은 論理的으로 그럴듯 하나 그야말로 兩者間에 符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問題는 우리가 社會變動을 일으키려고 할 때 研究의 結果를 어떻게 使用하고 있는가를 따져 봄으로써 어느 程度 檢討될 수 있다.

卽 이 上을 變化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知識을 適用하려면 어떤 種類의 主張이나 命題 (statement)를 必要로 하는가를 밝혀볼 必要가 있다. 이때에 우리가 必要로 하는 것은 「萬一 우리가 이것을 行한다면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에 關한 條件附 命題이며 單純히 過去 現在 또는 未來에 發生할 內容만을 記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行하기로 決定하였을 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現存하는 狀況下에서 어떤 行動이 願하는 結果에 이르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sup>(34)</sup>

이와 같은 條件附 命題가 實際의 事件發生에 關한 命題와 共通되는 點은 兩者가 다 같이 一般的 또는 概括的 命題의 使用 없이는 成立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概括的 普遍的 敘述은 豫測과 實行을 위하여 다 같이 必要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어떤 行動을 取하고자 하는 者의 見地에서 본다면 그의 關心事는 豫測에 依하여 어떤 事件이 일어나리

(34) Gi son, *op. cit.*, pp. 197-209.

는 것을 아는 것만이 아니고 그가 取할 行動이 어떤 結果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데 있다.

要컨대 豫測이 實際行動을 위해서도 必要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社會科學者의 研究結果에서 얻은 社會現象에 관한 豫測이 언제나 쉽사리 適用된다는 말은 아니다. 研究結果를 實行하려면 그것을 實行할 수 있을만한 社會的인 힘을 가지고 있거나 社會的인 힘을 가진 者에게 影響을 미칠 수 있어야 하는데, 힘을 가진 者와 社會科學者가 어떤 願하는 結果에 對하여 서로 合意를 보지 못하는 例는 너무나 흔히 있는 일이다.<sup>(35)</sup>

그뿐만 아니라 從來, 理論과 說明이 實踐問題에 도움이 안된다고 보는 생각은 單純히 그것을 立證이라는 立場에서 보아 왔기 때문일 수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새로운 人間社會를 發明하기 위한 政策의 形成에 있어서는 소위 「創造의 論理」에 依한 目的 手段의 發展이 必要할는지도 모른다.<sup>(36)</sup>

---

(35) *Ibid.*

(36) 朴鍾淵 教授는 그의 一般論理學 (서울: 白映社, 1954 訂正八版), pp. 182-195에서 「創造의 論理」를 論하고 있다.